담담한 신태용 "조별리그 통과하면 토너먼트 수월할 것"

아르헨티나·잉글랜드 보다 기니 더 경계
"아프리카 강호와 평가전 등 만반의 준비"

가장 원치 않았던 결과에 모두가 당혹스러워했지만 한국 신태용(47) 감독은 비교적 담담했다. 물론 조 추첨식 전에는 "(오세아니아의) 바누아투를 만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전했지만, "어차피 결과는 나왔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15일 수원 아트리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 추첨식에서 한국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A조에 묶였다. 개최국 자격으로 얻은 톱시드(포트1)의 이점은 조금도 누리지 못했다. 행사장을 찾은 각국 관계자들과 FIFA 임직원들조차 화들짝 놀랄 정도의 아쉬운 결과였다.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신 감독은 "이렇게 험난한 조에 포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한 팀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대회 개막까지 남은 기간 팀을 단단히 잘 다져놓고, 조별리그를 치열하게 통과하면 토너먼트에 올라 훨씬 수월한 경기를 펼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 감독의 진짜 걱정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아니다. 남미,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에 대한 전력은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지만, 기니가 걱정스럽다.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연령별 대회에 강했다. 더욱이 한국 축구는 아프리카에 그리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앞으로 아프리카국가를 상대로 좀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최대한 강한 상대와의 친선경기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U-20 대표팀의 향후 일정도 개괄적으로 드러났다. 이달 말 수원, 천안, 제주에서 열릴 4개국 초청대회에 참가할 대표팀은 19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된다. 이 때까지는 테스트 성향이 짙다. 선수들에 대한 마지막 점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후 4월 중순 마지막 소집이 이뤄진다. 5월 초 발표될 최종 엔트리의 윤곽도 이 무렵 나온다. 4~5월 최소 2차례 이상의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2017 U-20 월드컵 일정

구분	기간(날짜)	개최도시
조별리그(36경기)	5.20~28	전주, 수원, 인천,
16강전(8경기)	5.30~6.1	대전, 천안, 서귀포
8강전(4경기)	6.4~5	전주, 수원, 대전, 천안
4강전(2경기)	6.8	전주, 대전
3·4위전	6.11	수원
결승전		

※ 한국 조별리그(A조) 일정
=5월 20일 vs기니, 23일 vs아르헨티나(이상 전주), 26일 vs잉글랜드(수원)



"U-20 월드컵 파이팅!"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 추첨식이 15일 수원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대회 조직위원회 차범근 부위원장(왼쪽 3번째), 정몽규 위원장(왼쪽 4번째), 신태용 U-20 대표팀 감독(왼쪽 5번째) 등이 우승트로피 앞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수원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기니 '당황'…아르헨 '복잡'…英 '경계'

■ 조심스러운 상대국들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15일 수원 아트리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 추첨식에서 나온 의외의 결과에 복잡하고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은 개최국 한국만이 아니었다. 우리와 만날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도 '수월한 여정'이 될 수 없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5월 20일 전주에서 한국과 공식 개막전을 치를 기니의 만주 디알로 감독은 "강호들과의 경기를 기대해왔다"고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팀 전력에 대한 물음에 철저히 함구하며 "대회가 개막하면 알 수 있다"는 짤막한 코멘트만을 남겼다.

자국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에 의해 한국과 묶인 아르헨티나 클라우디오 우베다 감독의 마음은 좀더 복잡했다. 마라도나가 격한 기쁨을 표출한 것에 대해 "똑같은 심정"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홈 어드밴티지가 있고,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잉글랜드는 전통적으로 강했다. 기니도 언제든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잉글랜드를 대표해 참석한 애런 맹크스 코치는 "본선에 오른 모든 나라가 강하지만, 그 중 A조가 가장 치열할 것이다. 그래도 강호들과의 경기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의 경기력과 최선의 결과를 위해 알찬 선수단 구축을 선언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데려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원 | 남장현 기자

정몽규 회장 "월드컵 한중일 공동개최 추진"
〈2030년〉

"48개국으로 늘어나 공동개최가 트렌드
U-20 한국 성적? 신태용 감독 믿는다"


정몽규 회장

정몽규(55) 대한축구협회장이 한국·중국·일본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 회장은 15일 수원 아트리움에서 진행된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 추첨에 앞서 "2030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놓고 (한중일간)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며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개최한 바 있다.

동아시아 3개국의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한 정 회장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풋볼팬타지움 개관식에서도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과 월드컵을 함께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깜짝 발언 직후 다시마 고조 일본축구협회장은 "(한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올 1월 일본 매체를 통해 이미 관련 사항이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 회장은 "FIFA 인판티노 회장도 2030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본선 출전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만큼 한 국가가 홀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버겁다"고 FIFA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 회장은 5월 20일 개막하는 U-20 월드컵과 관련해선 "대회 흥행과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개최국이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실력이 검증된 신태용(47) 감독인 만큼 잘하리라 믿는다. 친선대회와 출정식도 계획하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남장현 기자

U-20 월드컵 오피셜송 '열정을 깨워라' 공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내 6개 도시에서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오피셜 송인 '트리거 더 피버(Trigger the Fever·열정을 깨워라)'가 공개됐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수원 아트리움에서 진행된 본선 조 추첨식을 통해 오피셜 송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피셜 송은 조직위 홍보대사인 NCT DREAM(천러·런쥔·지성·제노·마크·해찬)이 불렀다. 조직위는 "20세 이하 젊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박진감 넘치는 비트가 가슴을 뛰게 하는 경쾌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대회 슬로건인 'Trigger the Fever'를 타이틀로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젊은 선수들의 도전과 꿈, 하나 된 희망을 노랫말에 담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로또 40억 당첨자! 1, 2, 3등 한번에...

–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5일만에 12억 당첨 화제!
– JTBC, MBN, 채널A 등 방송언론에 당첨금 전액기부 보도!


오정식 대표

누구나 한번쯤 '내가 만약 로또 1등에 된다면..' 인생역전을 꿈꾸지만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꿈자리가 좋아서" "이번만큼은" 이라는 생각으로 로또를 구매해도 현실은 '꽝' 운이 좋아도 5등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허탈감만 항상 느끼게 된다. 이제 수학적 접근방법으로 당첨확률을 높여 '로또 당첨은 운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 와 자체 개발한 예측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꾸준히 로또 1등을 배출, 로또 마니아들에게 '온라인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로또 분석 전문 업체 '로또플레이'(대표번호:1666-6645)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또플레이는 국내 최단기간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총 173회 배출, 2등 총 854회 배출, 3등은 총 26,761회를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영수증과 거래내역서까지 홈페이지(LOTTOPLAY.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최근엔 로또 정보업체 로또플레이의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705회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예측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전문 업체다. 정모씨(47세/여)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에 가입하고 예상번호를 문자로 제공받은지 5일 만에 로또 1등(12억 6천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고, 제 641회차에서는 인기 레이싱 모델이 로또 2등에 당첨된 비결이 바로 예상번호를 제공해 준 '로또플레이'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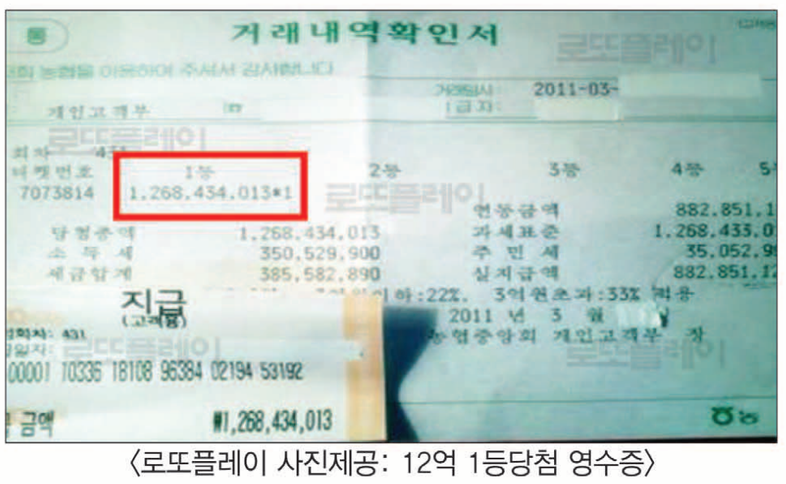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께 통계기반(26단계 필터링)으로 만들어진 1등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상번호를 매주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 / 수량 변경가능)

한편 로또플레이는 실제 1등 배출 기념 최대 70%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중이다. (최대 70% 할인 가입비: 6개월 49,000원/1년 69,000원/3년 124,000원)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40억 1등당첨 영수증〉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12억 1등당첨 영수증〉